

사파리·주토피아 부지 사용도 못해보고…남은 건 소송 뿐

“전남도, 신안 도초도 소유자에 환매권 미통지로 4억 배상” 판결
사업 검토 부족, 부지매입비·배상금 등 예산 낭비…도, 항소기로

전남도가 신안 섬에 ‘사파리 아일랜드’를 조성하려다 포기한 것과 관련,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환매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남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들인 부지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부지매입비부터 손해배상금까지 애꿎은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광주지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2부 주재광 부장판사는 최근 신안군 도초도 일대 원 토지소유주 31명이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도가 토지소유주들에게 4억 985만

여원에 더해 환매권 소멸일 이후 소요된 일수만큼 자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원고들은 지난 2013년 전남도가 공익사업인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을 하겠다며 협의 하에 토지들을 취득한 이후,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환매권은 토지의 원 소유자가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012~2014년 총 68억원을 주고 도초도 사파리아일랜드 부지를 매입했다.

지난 2005년 ‘전남 섬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중 하나로 야생 동물원 조성 대상지를 신안 도초도로 선정하고,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야생동물

복원공원 조성 및 기본구상 용역’, ‘사파리 아일랜드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따른 조치였다.

도초도 발매리 일원에 1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파리와 체험·놀이시설, 화조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사파리아일랜드 조성 사업은 2014년 9월 사업 타당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육지 동물원과의 차별화, 배로 1시간 가까이 들어가야만 하는 접근성 문제, 민간 투자자 유치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후 해당 부지는 2021년 신안군에 매각돼 ‘아일랜드 주토피아 조성 사업’ 대상 부지로 변경됐다.

신안군은 국비 218억원, 도비 43억원, 군비 174억원, 민간자본 817억원 등 1252억원을 투입해 초식동물 사파리, 팻공원, 동물테마파크, 숙박지구 등을 조성한다고 했었다.

이 때 전남도는 사업 중단 이후로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결국 토지

취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것이 원고들 주장이다.

전남도는 재판에서 “환매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해당 부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관광지 지정·고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를 밟은 적이 없으니 ‘공익사업 부지’ 요건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남도 주장이다.

또 “토지 취득 절차를 토지보상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에 따라 ‘자발적 매매계약’으로 진행했으니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안군에서 다른 공익사업을 이어하기로 했으니 환매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 주장도 펼쳤다.

반면 재판부는 “신안군의 공문에서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 취득·보상 협의를 요청한다’고 기재돼 있고, 실령 자발적인 매매라고 해도 협의취득 절차가 공유재산법상 매매계약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며 “관광진흥법상 지정·고시·승인 등 유무를 기준으로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신안군이 해당 부지와 관련 ‘아일랜드 주토피아’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사업 인정을 받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익사업 변경에 따라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유사한 소송 2건이 더 걸려 있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으로만 10억여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토지보상법 자체가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애초 이 사업은 공익사업 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 계획만 있던 상태였다”며 “공익사업 인정 여부를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따취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9년째 나눔 광주 에덴병원(원장 허정) 임직원들이 3일 오전 동절기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현혈캠페인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덴병원에는 1년에 두번씩 29년째 현혈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농기원 상표권 허술…농민·유통업체 피해”

도의회 “해금 키워’ 민간 법인에 넘어가 판로 어려움 발생’ 지적

전남도의회가 전남농업기술원의 허술한 상표권 관리<광주일보 1월 6·7일자 6면> 실태를 질타했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주용(민주·비례) 의원은 지난 2일 제 396회 임시회 기간 열린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해금 키워는 전남농업기술원이 공공 연구를 통해 개발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관리의 안일함으로 민간 법인에 상표가 넘어가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키워 품종인 ‘해금골

드키위’는 한 영농법인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유통업체 50여 곳이 ‘상표 도둑’에 내몰리게 됐다. 전남농기원이 혈값에 상표 사용 권리를 넘기고 계약이 만료가 된 뒤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재배 농민과 유통업체들이 상표 사용을 못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전남농기원은 과거에도 상주 품종인 ‘흑하랑’을 개발했으나 상표권 관리를 소홀히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상표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업

기술원이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농가와 유통업체에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갱신되지 않은 다른 상표권 전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며 “농민들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어촌 계절근로자·고용주 보험가입 의무화

임금체불 보증·안전·상해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안전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계절근로자·고용주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 상해보험을 각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산업재해·보증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농촌과 어촌 사업장 고용주에게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 두 가지가 의무화된다.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시 근로자가 만약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을 때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하며 1명당 연 1만5000원이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작업 중 사망·장해·질병을 보장한다. 신규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재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1인 연 10~30만원 사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단 고용주가 대신 상해보험비를 납부하고 추후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특히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보험 가입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진야 기자 jinggi@kwangju.co.kr

일교차 큰 입춘

입춘(立春)인 4일 광주·전남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다. 낮에는 기온이 최고 12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5일은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6~영하1도, 최고 5~8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4~1도, 낮 최고기온은 8~12도로 예상된다. 5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1~4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로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게 나타나겠다. 금요일인 6일부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도 가량 떨어지며 다시 추위질 전망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전두환·노태우 사진 군부대서 사라진다

앞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1980년 광주 학살을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씨의 사진을 군부대에 게시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부대관리훈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전씨, 노씨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